

## 21세기 러시아 사회와 대중영화

김수환(이화여자대학교)

### 1. 왜 영화를 읽어야하나?

#### 1) 산업적 측면:

- 대략 2003년경부터 본격화된 러시아 대중영화의 르네상스 현상. 8백만 달러(1997)에서 4억 천2백 만 달러(2005)로. 사실 이런 성장은 가스나 석유 산업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종류의 것.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O.(\$million)	24.9	36.0	112.0	190.7	290.1	365.4	412

표 1: Gross box-office dynamics (2000-2006)

- 연간 제작 편수, 자국 시장 점유율, 현대식(multiplex) 극장 수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 증가 추세. 국가 지원 뿐 아니라 민간, 해외의 초국적 자본 투자 또한 급증.

- 요컨대 러시아, 구 소연방국가들, 몽골 지역을 포괄하면서 민/관, 로컬/글로벌 자본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5억 불' 러시아 영화 시장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문화-경제'의 영역(arena) 중 하나>(\* 문화경제(cultural economy) - 문화의 경제화/경제의 문화화)

- 그런데, 영화라는 매체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위상은 단순한 상업적 수익의 측면을 넘어서는 것.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형식(가령, 근대의 소설)인 영화는 문화와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몸을 섞는 영역일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지구성이 가장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문제적 장소이자 대상임.

(언제나 불분명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간의 구분이 다소간 사라지는 곳, 그리고 문화와 경제가 모든 차원에서 서로 교차하는 곳은 이제 영화다. 다른 모든 매체에 비해 더 많은 가능성, - 비록 그게 보편적 형식은 아닐지라도 - 즉 가장 오래되고 지역적인(local) 예술 전통이 가장 현대적이고 세계적인(global) 광고 캠페인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곳 또한 영화다(Fredric Jameson, *The Geopolitical Aesthetic. Cinema and Space in the World system*,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특히, 이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혹은 초국가적 자본주의transnational capitalism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된 특정 국가(비서구권)가 세계를 향해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의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띤다.

(ex: national cinema와 blockbuster의 문제)

## 2) 문화적 측면:

- 이른바 '대중 영화'의 문화적 위상. 대중 영화를 통해 해당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대중 의식을 가장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희가 근대 부르주아들의 의식을 가장 잘 시각화한 매체라면, 오늘날의 대중의식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가장 잘 시각화됨.

- 대중 영화는 그것을 만든 사회의 온갖 정념과 무의식이 응축된 일종의 흔적과 같음(<판타즈마/집단적 꿈>(S. Kracauer); 대중의 무의식적 기대와 희망이 남긴 일종의 <시각적 날인(捺印)>(F. Jameson)). 해당 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을 해독할 수 있는 유용한 지도 cartography이자 그것을 낳은 사회의 정신구조를 보여주는 모종의 징후symptom.

- 결국 특정 시대의 영화를 일종의 지도이자 징후로서 읽는다는 것은 영화라는 문화텍스트를 그 시대의 욕망의 미장센이자 사회적 판타지 극장으로 파악하는 것.

## 2. 러시아 영화는 어떻게 부활했나?

### 1) 국가적 지원:

- 1996년, 러시아연방 영화보호법(<러시아 영화부문의 보호정책 실현을 위한 일급조치>) 두마 통과. 영화 관련 산업 소득세 감면, VAT 면제, 토지세 임대료 포함한 지대 면제 등 다양한 혜택. 1999년 연방 예산의 0.2%를 영화산업에 투자. 1998년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타격을 입고 빠르게 재활할 수 있었던 분야. 여기에 제작 및 배급의 자본주의적 시스템 확립, 현대식 극장 인프라의 구축이 병행. 대략 2003까지 영화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장치들이 거의 완료됨 (2004년부터 러시아 블록버스터 영화의 폭발이 시작)

### 2) TV의 역할:

- 90년대 후반부터 영화산업에 한발 앞서 그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 러시아 드라마: 90년대 초 중반 러시아 TV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던 남미식(브라질, 아르헨티나) 드라마telenovella를 대체하며 90년대 후반부터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 몇 년 씩 방송사를 바꿔가며 이른바 '시즌'으로 나뉘어 제작 방영되는 'vertical series'의 성공 (대표적으로, <부서진 가로등의 거리>, <카멘스카야> 등)

\* TV 영화/블록버스터: 대중적인 갱스터 장르물(<여단Brigada>)에서부터 19, 20세기 러시아 고전 문학작품(<백치Idiot>, <거장과 마르가리타>, <제 1옥> 등)을 영상으로 옮긴 경우

까지.

- TV 자본의 영화산업 직접 투자 (러시아 대중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2004년 이후 흥행 대작 대부분이 OPT를 비롯한 방송사의 직접 투자 및 적극적 홍보의 결과물)

### 3) 새로운 관객의 형성:

- 새로운 유형의 대중 (소비자) 관객의 형성: 영화 관람을 비롯한 레저에 돈을 지불할 의향과 능력을 갖춘 소비층의 출현. 새로운 시장 조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수백만의 (젊은) 소비자들의 형성. 동시에 그들은 지난 20년간 수입된 서구의 영상물에 거의 일방적으로 노출된 채 살아온, 그래서 이미 미국 영화의 장르 문법과 시각적 관습에 익숙해있는 (나아가 그것을 기꺼이 “즐겨온”) 관객들. 이런 새로운 관객층의 형성이 러시아 영화의 질적 향상 및 영화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견인.

### 4) 시네마 네트워크의 출현과 초국적 자본 투자:

- 시장에서의 역동적 성장은 개인 투자자 및 초국적 자본의 구미를 자극.

2006년 2월, 러시아 기반의 Patton Media Group과 Sony Pictures Entertainment 가 합작한 Monumental Pictures가 출범됨. 러시아, CIS, 몽골 지역에서 러시아어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담당.

러시아와 그 인접 국가는 엔터테인먼트 계열 사업을 벌이기에 가장 흥미롭고 전망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우리는 이 지역의 관객들에게 영화를 제공하기 위해 Patton Media Group과 한 팀을 이루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우리는 러시아 영화 산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Monumental Pictures를 창립하고자 한다. 현재 러시아 극장용 영화 시장은 매년 3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중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 나는 다가오는 몇 년 내에 우리가 이 역동적인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성장을 위한 거대한 기회가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CIS,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Michael Lynton, CEO of Sony Pictures)

- 200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디어 그룹인 Walt Disney Company 역시 local 프로젝트를 위한 러시아 office를 운용하겠다고 밝힘. 러시아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천만 달러 투자 계획.

## 3. 문제작 및 주요경향 (2003-2007)

1) [부메르Бумер(2003)]: 신화에서 현실로 혹은 90년대에 바치는 진혼곡

2) [나이트워치Ночной дозор(2004)]: 러시아식 블록버스터 혹은 징후로서의 영화

3) [9중대9роты(2005)]: 외상적 역사의 재현 혹은 기억/망각의 테크놀로지

- 4) [섬Остров(2006)]: 영적영화의 부활 혹은 푸틴 시대의 정교 수사학
- 5) [몽골Монгол(2007)]: 유라시아 프로젝트 혹은 러시아식 할리우드의 꿈

#### 4. 현대 러시아 영화 개관

2000

- Бахтиер Худой назаров "Луна Папа"
- Алексей Учитель "Дневник его жены"
- Алексей Балабанов "Брат 2"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Телец"

2001

- Сергей Бодров "Сестры"
- Кира Муратова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люди"

2002 :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Русский Ковчег"
- Павел Лунгин "Олигарх" (Тусоон)
- Андрей Кончаловский "Дом дураков"
- Егор Михалков-Кончаловский "Анти-киллер"
- Кира Муратова "Чеховские мотивы"

2003

- Михаил Брашинский "Гололед"
- Виталия Мельников "Бедный бедный Павел"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Отец и сын"
- Бахтиер Худой назаров "Шик"
- Егор Михалков-Кончаловский "Анти-киллер 2"
- Борис Хлевников и Алексей Попогребский "Коктебель"

- Алексей Учитель "Прогулка"
- Петр Буслов "Бумер"
- 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 "Возвращение"

## 2004

- Владимир Хотиненко "72 метр"
- Павел Чухрай "Водитель для Веры" ("Вор"(1997))
- Кира Муратова "Настрой щик"
- Тимур Бекмамбетов "Ночной дозор"
- Илья Хружановский "Четыре"

## 2005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Сольце"
- Джаник Фий зиев "Турецкий Гамбит"
- Федор Бондарчук "9-ая рота"
- Павел Лунгин "Бедн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Roots)
- Алексей Учитель "Космос как предчувствие"
- Алексей Балабанов "Жумурки"
- Алексей Герман-младший "Гарпастум"
-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ТВ сериал)
- "Дело о мертвых душах" (ТВ сериал)

## 2006

- Тимур Бекмамбетов "Дневной дозор"
- Петр Буслов "Бумер 2"
- **Живаго** (сериал)
- **В круге первом** (сериал)
- Юрий Гусман "Парк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 Павел Лунгин "Остров"

## 2007

- Никита Михалков "12"
- Сергей Бодров "Монгол"
- Алексей Балабанов "Груз 200"
- 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 "Изгнание"
- Алексей Попов "Простые вещи"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Александра"
- Кира Муратова "Два в одном"